

86년만에 쵸 선수 두번째 4강... 쵸 첫 메이저 우승 넘본다



24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전에서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58위)이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97위)의 공을 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 내일 준결승



정현(58·삼성증권 후원)의 시선은 이제 26일 준결승으로 향한다.

정현은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전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을 3-0으로 완파하고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 신화를 썼다.

이날 승리로 정현은 22일 발표 예정인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에서도 30위 안으로 진입하게 됐다.

정현은 3세트 게임 스코어 5-3에서 40-0으로 앞서가다가 듀스까지 허용하며 잠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집중력을 가다듬은 정현은 치열한

랠리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승리 후에도 정현은 큰 세리머니 대신 살짝 미소만 지었다. 경기 직후 코트 인터뷰에서 장내 아나운서는 이 장면에 대해 질문했다.

정현은 “사실 40-0(포티 러브)이 됐을 때 무슨 세리머니를 할까 생각했다. 그런데 듀스에 이어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풀렸다. 일단 공을 상대 코트에 집어넣고 달리기 바빴다. 결국, 아무런 세리머니를 못했다”며 웃었다.

16강전에서 전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를 잡았던 정현은 8강 진출자 가운데 랭킹이 가장 낮은 샌드그렌과 만났다.

그러나 경기는 쉽지 않았다. 정현처럼 강호를 연달아 격파하고 올라온 샌드그렌은 강력한 포핸드 스트로크로 정현을 위협했다.

정현은 “조코비치와 경기에서 겨우 이

겼다. 오늘 경기도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받은 정현은 관중석에 앉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 손승리 코치 등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현의 4강 상대는 로저 페테러(2위·스위스)-토마시 베르디흐(20위·체코) 전 승자다.

누구와 만나고 싶은

나는 질문에 정현은 잠시 난감해 하다 “50대 50”이라고 답했다. 16강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현에게 한국어로 소감을 말할 기회가 왔다.

정현은 “현지에서 응원해주신 한국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8강전 정현 - 샌드그렌 스코어 24일 호주 멜버른 3-0 정현 (58위·삼성증권 후원) 테니스 샌드그렌 (97위·미국) /연합뉴스

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팬과 친구들도 감사하다 아직 안 끝난 거 같다. 금요일에 뵙겠다”며 26일 준결승전을 기약했다.

“박태환·김연아급 유명세 실감... 영어 인터뷰 방법 배우는 중”

정현 인터뷰

“4강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는 생각이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 남자단식에서 4강에 진출해 한국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정현(58위·한국체대)이 4강 이상의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현은 24일 승리 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몸 관리와 준비를 잘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처럼 오는 26일 4강전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21살의 어린 나이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도 솔직히 자기 생각을 털

어놓았다.

정현은 “운동선수는 속마음을 들기만 안 된다고 배웠다”며 “들기만 상대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만큼 모든 선수가 속마음을 숨긴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정 선수를 동행하는 사람들 일부는 결승 진출, 나아가 우승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날 8강전에는 바짝 긴장한 모습도 드러났다.

경기 직전 느닷없이 ‘사이렌’이 울려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일부는 대피하려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으나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경기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튼튼한 허벅지가 외국 기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따로 허벅지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합을 많이 하고 있으며 시합이 최고의 훈련이라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수명의 박태환이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와 비교될 만큼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실감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요즘 하루에 300개의 메시지를 받는다”며 “꼭 답변해주는 성격이라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또 최근의 활약상으로 후원업체가 더 늘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라길 히

망하고 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현에게는 현재 5개 업체가 후원하고 있다.

영어가 부족 늘었다는 설명에는 특별히 영어 인터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괄목할 만한 성적에 관해 “한국의 주니어가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날 정현의 기자회견장은 약 40명의 기자가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8강전을 치른 테니스 샌드그렌(미국·97위)은 정 선수가 “환상적인 경기를 했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테니스 가족의 막내

부친 중고연맹 이사·형은 실업팀 활동

정현을 키운 사람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58위·한국체대)은 22일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를 꺾은 뒤 관중석 플레 이어 박스를 향해 큰절을 해 화제가 됐다.

정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스폰서, 매니저, 팀, 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 곳으로 절했다”며 “언젠가는 멋진 코트에서 승리하면 그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일 알렉산더 즈베레프(4위·독일)와 3회전 경기에서 이긴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멜버른에 함께 와 있는 팀은 몇 명인가”라는 질문에 “부모님과 형, 코치 2명이 함께 있다”고 답했다.

정현과 함께 호주에서 머물며 함께 응원하는 이들은 매 경기 정현의 플레 이어 박스에 자리 잡고 앉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정현은 잘 알려진 대로 ‘테니스 가족’의 막내다. 아버지 정석진(52) 씨는 정현의 모교인 삼일공고 테니스부 감독을 지낸 경기인 출신이다.

현역 시절 대한항공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지금은 중고테니스연맹 전무 이사를 맡고 있다. 어머니 김영미(49) 씨는 두 아들을 모두 테니스 선수로 키워낸 ‘테니스 맘’이다.

그의 형 정홍(25)은 실업 현대대상에서 테니스 선수로 활약 중이며 29일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앞두고 있다.

김남훈 현대대상 감독은 “(정)홍이가 입대 전에 동생 경기를 직접 보면서 응원하고 싶다고 해서 호주까지 갔다”며 “귀국해서 거의 바로 입대해야 하는데도 동생을 위해서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28일이라 만일



정현 어머니(오른쪽)와 형 정홍씨.

정현이 결승까지 진출하면 정홍은 결승전은 보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 셈이다.

정현의 지도는 이달 초부터 새로 영입한 네빌 고드윈(43·남아공)과 손승리(43) 코치가 맡고 있다.

고드윈 코치는 지난해 US오픈 준우승을 차지한 케빈 앤더슨(12위·남아공)을 가르쳤으며 2017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올해의 코치상을 받았다.

고드윈 코치와는 호주오픈까지 함께 한 뒤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승리 코치는 울산공고와 울산대, 현대대상 등에서 선수로 활약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대한테니스협회 국가대표 후보 선수 전임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조코비치를 물리친 이후 중계 카메라에 ‘캡틴, 보고 있나’라는 글을 써 화제가 됐던 김일순 전 삼성증권 감독도 정현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다.

또 현재 정현의 매니지먼트는 IMG에서 맡고 있고, 의료 후원은 라코스 테와 계약 중이다. /연합뉴스

7억5600만원 확보...우승 땀 34억원

상금도 대박

2014년 프로 무대에 뛰어든 정현(58위·한국체대)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4강 진출 하나만으로 이제껏 벌어들인 상금의 40%가량을 챙겼다.

정현은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단식 준결승에서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을 3-0으로 제압하고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단식 준결승에 진출했다.

호주오픈 4강 진출 상금은 88만 호주달러(약 7억5600만원)다.

이번 대회 전까지 정현이 벌어들인 총상금은 170만9608달러(약 18억3200만원)다. 메이저 대회는 이처럼 높은 상금이 걸려

있어 정상급 테니스 선수는 1년에 4차례 벌 어지는 메이저대회에 초점을 맞춘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ATP 투어보다 한 단계 아래인 챌린저 대회를 병행했던 정현은 이제 정상급 선수로 도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현이 결승에 진출하면 2014년 US 오픈의 니시코리 게이(24위·일본)에 이어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로 메이저대회 단식 결승을 벌인다. 동시에 정현은 200만 호주달러(약 17억1800만원)의 상금을 확보한다. 이는 정현의 총상금과 맞먹는다.

파죽지세로 우승까지 차지하면 상금이 400만 호주달러(약 34억3500만원)다.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쥐는 셈이다. /연합뉴스

“거물 사냥꾼·교수·아이스맨” 외신도 주목

정현(58위·한국체대)의 씩씩한 행진을 해외 언론도 주목한다.

정현이 24일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에서 테니스 샌드그렌(97위·미국)을 3-0으로 손쉽게 제압하자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정현이 역사를 새로 썼다(Chung makes history)”는 제목을 뽑았다.

정현은 22일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와 16강전에 승리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8강에 진출했다.

이어 이날 ‘4강 신화’까지 쓰면서 당분간 자신을 제외하고는 넘어서기 힘든 금자탑을 쌓았다.

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남자 선수 가운데 정현보다 메이저대회에서 높게 올라간 선수는 니시코리 게이(23위·일본)가 유일하다.

니시코리는 2014년 US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AP 통신은 “올해 만 21세인 정현은 2010년 마린 칠리치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호주오픈 4강에 진출했다”며 “정현은

세계 4위 알렉산더 즈베레프, 6차례 호주 오픈을 제패한 조코비치를 차례로 무찌르고 올라왔다”고 자세하게 소개했다.

대회 홈페이지는 “정현이 서울에서 가장 번잡한 명동 거리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정현이 선전을 펼치며 한국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재치있게 표현했다.

AFP 통신은 정현에게 ‘거물 사냥꾼(Giant killer)’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해외 언론에서는 정현이 테니스 선수로는 드물게 안경을 쓰고 경기한다고 해서 교수(The Professor)라는 별명을 선사했다.

또한, 젊은 나이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아 아이스맨(Iceman)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AFP 통신은 “즈베레프와 조코비치를 연달아 제압한 ‘거물 사냥꾼’ 정현이 준결승에서도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